도민체전 살인극 정건철씨 자수

전남도민체전 기간 중 전남도 씨름협회 신명석(51) 전무이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났던 전남도체육회 정건철(61) 사무처장이 범행 5일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수했다.

강진경찰에 따르면 정 처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45분께 강진군 강진읍 H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신 전무를 살해하고, 씨름협회 백낙천(58) 회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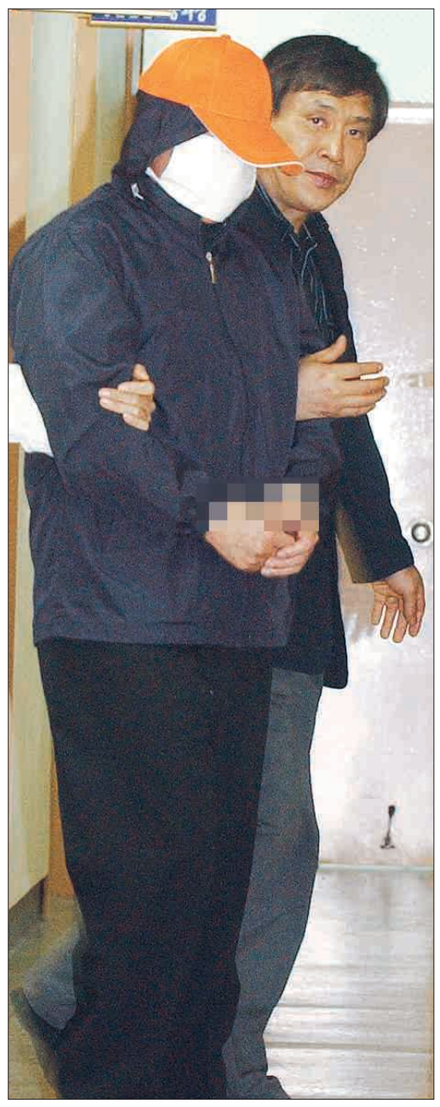
정 처장은 범행 후 경기도 안양을 거쳐 서울에서 4일 동안 머물며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달 29일 오후 가족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30일 새벽 4시 서울에 급파된 형사에 의해 강진으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 처장의 범행은 ▲체육회 운영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상임부회장과의 잦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임부회장을 두둔하는 씨름협회 간부들과의 말다툼이 직접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정 처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정황과 도피 과정을 밝히기 위해 목격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신 전무의 장례식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전남지역 체육인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체육회 장(葬)으로 고향인 장흥군 장흥읍에서 치러졌다.

/강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씨름협회 전무를 흉기로 살해 후 달아났던 전남도체육회 정건철(주황색 모자) 사무처장이 지난달 30일 자수, 서울에서 강진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강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체전 후 쫓아낸다는 말에 격분"

■ 자수한 정씨 일문일답

자수한 정건철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박모 상임부회장과 친한 씨름협회 관계자들이 도민체전 끝난 뒤 나를 사무처장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을 하고 다니는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해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가?

▲전문 체육인이 아닌 정치인이 '낙하산 인사'로 오면서 체육회 모든 사업이 부회장 개인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됐다. 사건 전날인 25일에도 "상임부회장에게 사무처 운영을 맡기고, 잘 모셔라"는 씨름협회 배모 상임부회장의 말에 화가 나 이들을 불러 사과를 받으려 했을 뿐이다.

-상임부회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는?

▲상임부회장이 부임한 뒤 그동안 사무처장이 책임지고 결재하던 예산과 업무를 직접 챙기면서 설 자리를 잃었다. 사무처장 자리는 경기 단체와 감독·선수들을 찾아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데도 눈치를 보며 출장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사무실을 지켜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부하직원들이 "사무처장이 할 일이 있는데도 왜 상임부회장이 전권을 휘두르는지 모르겠다. 처장님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건의를 할 정도였다. 체육계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사의 영입으로 인해 사무처가 갈등을 빚었고, 처장인 내가 직원과 상임부회장 사이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당시 상황은?.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전남 경기단체 전무이사 모임의 회장과 총무로 함께 일했을 정도로 명석이와는 친했다. 사건 당일도 명석이가 중재를 하려고 했는지 먼저 식당 방안으로 들어왔고, 그동안 서로 쌓인 오해를 풀고 있었다.

이때 백낙천 회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갑자기 국그릇을 술상에 던지더니 술상을 엎었다. 그래서 흉기를 꺼냈고 이 과정에 나도 모르게 말리던 명석이를 찌르게 된 것 같다.

/강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상임부회장·사무처장 '이중 조직'

■ 도체육회 구조적 문제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자리를 없애든지, 사무처장 권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둬 갈등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체육회는 회장인 전남도지사 아래 상임부회장이 전체 조직을 총괄하며 사무처장은 사무처 업무를 관장한다. 상임부회장은 연 5천400만원(업무추진비 1천200만원 별도)의 연봉을 받고 있고, 인사·조직운영·예산집행 전결권을 갖고 있다. 반면 사무처장은 소규모 경상비 지출과 사소한 운영상의 업무 결재만 할 수 있다.

전남도 체육회의 올해 예산은 69억4천260만원으로, 인건비는 6억8천만원(9.9%)이다. 하지만 ▲전국체전비

사사건건 갈등·대립…일원화 시급

(25억3천900만원, 36.6%) ▲동계(1억3천만원)·소년(2억1천만원)·도민체전비(1억4천만원) 등 세출 항목에 '재량'으로 쓸 돈이 상당부분 섞여 있다는 게 체육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물건비(2억8천500만원)의 경우 ▲사무실 운영 등 소모성 경비 6천300만원 ▲여비 6천300만원 ▲업무추진비 8천만원 ▲직책수행경비 7천400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의 경우 과거 정치인이나 퇴임 관료들이 맡아 오면서 체육계 인사인 사무처장과 구조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두 직책 간에 조직 운영 주도권 다툼이 심해지고 가맹 단체들을 지연·혈연 등을 통해 줄을 세우는 등 부작용이 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전남체육계 인사들은 "상임부회장 자리가 전라남도지사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구조적으로 체육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전남·제주·서울·경남·전북을 제외한 10개 시·도는 상임부회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장이 업무를 관장한다. 부회장 직책이 있는 6개 시도 중에서도 서울·경남·전북은 비상근으로 상징적인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유소서 면세유 34만ℓ 판매

2억 편취 30대 영장, 농어민 등 무더기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지난달 30일 지역 농어민 등과 결탁해 면세유 수십만ℓ를 빼돌린 무안 D주유소 사장 김모(3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김씨에게 면세유를 넘긴 박모(48·무안군 몽탄면)씨 등 농어민 6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농어민들과 공모, 지난 2003년부터 면세유 34만ℓ를 빼돌려 면세 금액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일반인들에게 판매, 2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박씨 등은 영산강 내수면에서 어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도 허위로 어선을 등록, 면세유를 받아 가정용 난방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용 연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유소 측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농민 최모(56)씨는 면세 가격의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지급받을 면세유 전량을 주유소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다른 주유소도 유사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反 FTA 폭력시위 주도 4명 경찰 출두

반 FTA(자유무역협정) 집회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주도,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지도부 4명이 지난달 3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해 11월22일 광주 시청사 앞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미 FTA 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공동대표' 허모(55)씨와 전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정모(37)씨 등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폭력 시위에서는 전·의경 등 3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청사 유리창과 집기류 등 4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었다.

허씨 등은 그동안 C대학 등에서 은신했으나, 당시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기아차 노조원과 농민 등 5명이 잇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고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지도부가 시위 책임을 지는 뜻에서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열린 FTA 반대 시위로 인해 구속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농민·노동자는 허씨를 포함해 9명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순천경찰, 불법 공기총 유통 3명 검거

순천 경찰은 지난달 30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공기총을 유통시킨 이모(46)씨 등 3명을 총포·도검 화학류 단속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8월께 광주에서 총포상을 운영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폐기처분 의뢰를 받은 공기총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친구인 오모(41)씨에게 빌려 준 혐의다.

오씨도 건네받은 불법 공기총을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말 선배인 김모(51)씨에게 맡겼으며, 김씨는 지난 25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자신의 후배 안모(48)씨를 이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수갑 찬 우울증 50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지난달 30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야산에서 이모(52)씨가 수갑을 찬 채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10여 년 전 경찰에서 사용한 구형 수갑을 뒤로 찬 채 엎드린 상태였고, 주위에는 극약이 든 소주병 등이 널려 있었다.

가족들은 이씨가 최근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으며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 풍영정천·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나우찬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박지윤·최동석 사진 유출 수사 의뢰

〈박지윤-최동석 아나운서〉

쌍나팔

○…인터넷에 유출된 사생활 사진과 관련, KBS의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들은 또 유출된 사생활 사진을 게재한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최동석-박지윤 아나운서는 2004년 입사한 KBS 동기로 1년여 동안 교제해 왔으며, 이번에 유포된 사진은 데이트 사진 등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촬영했다는 것. /연합뉴스

좋은사람, 좋은여행-
참좋은여행
www.verygoodtour.com
일반여행업 등록 685호 / 롯데백화점 광주점 건너편
대표번호 1588-7557
광 주 점 062)515-7600
거품없는 가격만족! 품질만족!
꿈꾸던 여행이 시작됩니다.(단체문의 환영)
2인 이상 출발가능한 배낭여행 특집
[THAI HOLIDAYS]
방콕 자유여행 5일
₩449,000 ▶5/2,3,4,5,7,10,15,17,19~
[100%자유여행]
싱가폴 에어텔 5일
₩619,000 ▶5/6,7,9,10,11,13,16,17,18~
[MH직항]
코타키나바루 자유여행 5일
₩549,000 ▶5/9,12,16,19,26,30, 6/2,9,13~
[추억만들기!]
홍콩 내맘대로 자유여행(4인이상) 3일
₩599,000 ▶5/4,11,18,25
광주출발
봄의향기 가득한 제주도 여행
[특가]왕복항공 3박4일 (일반호텔 합숙기준)
₩139,000 ▶ 5/2,6/13
[주중]2박3일 정기관광 (월/화/수/목요일 출발) 일반호텔 합숙 ₩159,000
[현철,이용식]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날 효도잔치]
제주 2박3일(일반호텔 합숙기준) ₩249,000 ▶5/6일
제주 3박4일(일반호텔 합숙기준) ₩249,000 ▶5/7일
천하절경! 장가계특집
광주↔장사
5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 목/일요일 출발
[실속!] 장사/장가계 4일/5일
₩570,000/₩630,000
▶매주 목요일 출발
[품격!] 장사/장가계 4일/5일
₩620,000/₩660,000
※불포함사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민족의 성지 백두산으로!
광주↔심양
고구려문화 유적지탐방 4일
₩539,000▶매주 금요일출발
심양/백두산 4일
₩679,000 ▶매주 금요일출발
심양/단동/백두산 5일
₩729,000 ▶매주 월요일출발
※불포함사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광주출발
중국/일본/동남아
상해/장가계/항주 5일
₩839,000 ▶5/19,26, 6/9,16
상해/항주/주가각/소주 4일
₩419,000 ▶매주 수요일출발
[문화탐방]일본 큐슈크루즈 4일
통나무콘도 ₩279,000 ▶6/3
통나무콘도와 전통온천호텔 큐슈크루즈 4일
₩299,000 ▶6/1,7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6/7
싱가폴/바탐/조호바루 5일
₩619,000 ▶5/30 확정
BEST 동남아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캄보디아앙코르왓 6일
₩599,000 ▶5/8,19,26,㉘,⑳
▶일급호텔,압살라민속쇼,프놈바켕일몰,수상인형극 관람
[OZ실속]푸켓/팡아만/전통안마 6일
₩499,000 ▶5/29, 30, 6/⑥, ⑦,12,13,19,20
▶전통안마2시간,코끼리트래킹,허브사우나
[노팁!]방콕/파타야/로얄드래곤 5일
₩449,000 ▶5/8,10,12,13,14,15,19,20~
▶일급호텔,압살라민속쇼,프놈바켕일몰,수상인형극 관람
▶고품격(10만원추가시)
• 파타야롱비치특급호텔, 알카자쇼,코끼리트래킹,전통안마2시간, 씨푸드, 로얄드래곤,MK수끼
중국
[실속!]북경/만리장성/용경협 4일
₩249,000 ▶5/5,6,9,11,12,13,14,15
[트래킹!]상해/황산일출/항주 5일
₩499,000 ▶5/9,14,16,18
(OZ연합항공이동)중경/구채구+황룡 5일
₩849,000 ▶5/4,11,18,25 6/1,8,15,22
우루무치/투루판 5일/6일
₩599,000/₩799,000
곤명/석림/구향동굴/대리/여강(특급호텔) 6일
₩829,000 ▶5/6,13,20
일본
동경/닛꼬/후쿠시마온천 4일
₩549,000 ▶5/6,8,9,12,13,15,16
오사카/나라/교토/벳부온천 4일
₩599,000 ▶5/9,16,23,30
북큐슈/하우스텐보스/벳부/아소/구마모토 5일
₩549,000 ▶5/7,14,21,28
新일본핵심 5일
₩799,000 ▶5/6,8,10,13,15,17,20,22
대양주
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와이토모 10일
₩1,390,000 ▶5/12,19 6/2,9,16,23
[파격!]타우포송어낚시+호주(포트)/뉴질랜드남북섬 11일
₩1,290,000 ▶5/23(단하루)
유럽/미주
[찬스] 특가!스페인/포루투칼/모로코 11일
₩2,190,000 ▶5/1,8,15,22,29
[찬스] 실속!노팁!노옵션!서유럽6국 12일
₩2,590,000 ▶5/6,13,20,27
유럽3대박물관/베르사이유궁전/세느강유람선/융프라우/베네치아곤돌라
(봄의왈츠)노팁!노옵션!동유럽5개국 9일
₩2,190,000 ▶5/14,15,17,22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오스트리아
(신동유럽)아드리아海 발칸6개국 완전일주 12일
₩2,490,000 ▶5/16,23,30
루마니아/불가리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품격!]노팁!노옵션! 터키항공일주(TK) 8일
₩1,690,000 ▶5/2,5,9,12,16,19,23,26,30
[특선!] 아름다운 베르겐 러시아/북유럽4국(SU) 12일
₩2,490,000 ▶5/5,9,12,16,19,23,26
캐나다 록키완전일주+수상경비행기 9일
₩2,290,000 ▶5/7,14,21,28
[OZ연합] 미동부/보스톤 8일
₩1,990,000 ▶5/8,15,22,29
[OZ연합] 미서부/3대캐년 7일
₩1,390,000 ▶5/6,13,20,27
[노팁!노옵션!] 고품격 퍼펙트 중남미7개국 20일
₩6,290,000 ▶5/1,8,15,22,29,6/5,12,19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주관: 참좋은여행(주) • 서울시 중구 서서문동 21-1 효성빌딩 11층 • TEL:(02)595-7000(代) / FAX:(02)599-4555 • 여행블랜처리센터: 1588-8692 • 교통편: 항공 및 전용버스 / 전지역 • ○날짜 요금안상 • 추가 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 공통여행조건: 여행경비 1인기준 (공항세, 출국세 포함/별도 표시역 외 1급 호텔 이용, 개인팁 1일-US10$/¥1,000/10유로를 권장합니다.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 10-15명, 해외 여행자 보험